

담양 죽녹원, 전남도 유일 지방정원 등록

연간 140만 명 이상 찾아...전남 대표 정원 으뜸

한국관광 100선 3회 연속 선정,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담양 죽녹원이 전남도 유일의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

죽녹원은 2005년 3월 개장 이후 연간 14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로서 울창한 대나무숲에서 죽림욕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담양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죽녹원 지방정원은 등록면적 156,959㎡에 역사정원, 누정정원 등 5가지 주제의 정원을 갖춰 지난 7월 3일 지방정원 등록 신청서를 전라남도도에 제출하고 9월 20일 전라남도 현정원장을 거쳐 1일 최종

적으로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 지방정원 등록을 위해서는 면적 100,000㎡이상, 녹지면적 40% 이상으로 관리시설과 주제정원, 편의 시설 등을 갖춰 관광 시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정원 등록과 운영에 적합한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정원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 발굴, 식물 확보·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정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규제특례를 통



원 특구 지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원도시 담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담양 전통정원 등록 사업의 일환으로 담양 죽녹원에 위치한 담양 죽림정원

고흥군,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청년유턴·아이행복·귀향귀촌 등 정책 제안 접수

고흥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인구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고흥군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것으로 △청년 일자리 및 기업유치 방안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 환경 개선 △귀향·귀촌(귀농어 포함) 정책 활성화 방안 △기타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다.

응모지역은 고흥군 인구정책에 관심있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 메일

(farmer0719@korea.kr), 우편, 방문, 팩스 제출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제출된 제안 정책은 11월 중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 9건을 선정하여 시상 등급에 따라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한다.

군 관계자는 "고흥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고흥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830-580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한윤섭 기자

순천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순천시에서는 지난 9월 24일과 26일 이틀간 드림스타트 아동 부모 50명을 초청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엄마 심리수업을 통해 양육태도 유형을 알고 자녀와의 올바른 소통법을 배우는 등 자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바람직한 부모로서의 역할 정립해 나

가는 과정으로 마련됐다.

한편 이튿날 교육에 이은 가족을 이용한 간단한 소품(피우치 및 핸드폰 케이스)만들기 실기교육은 부모들에게 매우 인기 있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높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동 부모는 "교육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부모인가?' 생각했고 반성할

점도 많다"며 "이번 기회에 아이와 대화하는 법을 배운 것 같다"고 교육소감을 밝혔다.

순천시 드림스타트는 지역사회 내 여러 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소방안전 교육 및 이동학대·폭력 예방프로그램, 건강검진, 특기적성 학원 연계, 전통예절 교육, 찾아가는 심리정서발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하고 행

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우리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고 유능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동들의 건강한 양육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영광군, 새기술 보급사업 종합평가회



영광군은 지난 9월 27일 시범사업 농가 및 농업인 단체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새기술 보급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올해 추진한 식량, 원예작물 분야 기술보급 사업 전반에 대해 추진 상 문제점 및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식량작물 분야에서 벼 신품종 증식단지, 저비용 유기재배단지 그리고 소득작물 분야에서는 딸기 신품종 재배단지, 스마트팜 구축단지, 망고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참여농가들은 평당 37~50주를 이양하는 전남농업기술원 벼 소식 재배 포장 견학을 통해 실제 영농 현장에 적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소규모 단독하우스 스마트팜 보급모델을 제시하고 해당 농가에 대해 작목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컨설팅하는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구축단지와 보급시범사업에 대해 큰 호응을 나타냈다.

센터 관계자는 "평가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농업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신기술보급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여수시, 국동지구 하수도정비 지역 선정

여수시가 오는 2023년까지 국동 지구에 315억 원을 투입해 침수를 예방한다.

여수시는 지난달 27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포함돼 국비 221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앞으로 국비에 지방비를 더해 총 사업비 315억 원으로 국동수변공원에 빗물펌프장과 우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국동·대교동 지역의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동지구는 지대가 낮아 만조 시 배수관로를 통해 바닷물이 역류하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상습침수가 발생하던 지역이다.

여수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18년 10월부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8월 환경부에 중점관리지역 신청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여수시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국동지구 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매년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곳을 지정해 지자체가 하수도 확충사업을 제때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여수=송기홍 기자

광양시, '가족사랑 태교음악회' 개최

아름다운 선율로 임신부 행복지수 높여

광양시 보건소는 지난달 26일 월드마린센터에서 임신·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임신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시 승격 30주년 기념 '가족사랑 태교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태교음악회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통과 화합의 다채로운 음악공연을 통해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다양한 문화행사가 뒷받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광양상공회의소(주)건우, 동광양농협, 아이통곡 광양점 등 지역사회 기업체들의 후원과 통합보건의원과 직원들의 작은 마음이 더해져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한편, 시는 저출산 극복 시책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수상하는 쾌

거를 이루고, 시상금으로 유모차 살균기 및 모유 수유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날 음악회에 참석한 세 아이의 학부모는 "이런 품격있는 음악회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 감동적이고, 초대해 주어 고맙다"며, "앞으로 광양시가 아이 양육하기 더욱더 좋은 행복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가 뒷받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정희 보건소장은 "광양시의 많은 예비 부모, 부모들이 행복한 결혼, 임신, 출산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번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